

학교폭력에 나타나는 마음의 문제: 성경적 상담의 관점

황 규 명*

국문초록

폭력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폭력이 이제는 학교 안으로 들어와 조직화되고 치명적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가능성 있는 원인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중 어떤 것도 확실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려면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마음은 죄 성을 타고 난다. 이 사실이 폭력에 관한 상담, 특히 가해자 상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 심리적 상처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 성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는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존재가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 이기심, 교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 탐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과 정체성을 얻게 해야 한다.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람들, 특히 가해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성과 하나님께 대한 반항을 깨닫고 새로운 시각과 마음을 얻는다면, 그 행동이 변화될 것이다.

중심단어 : 하나님, 그리스도, 마음, 죄성, 폭력

• 논문 투고일: 2011년 4월 15일

•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17일

*충신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1년 5월 7일

I. 여는 글

오늘날,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사회현실 속에서 부조리와 부패가 만연하며, 그와 함께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자연히 폭력적인 사회구조가 만들어지고, 폭력적인 개인이 스스로 자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조차 기대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폭력적이고 의식 없는 사회악이 고스란히 청소년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청소년들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던 숨은 폭력이 이제는 학교 안으로 들어와 단순한 탈선이 아닌 심각한 학교안과 주변의 범죄로 공공연히 자리를 잡고 있다. 학교 폭력집단은 성인 폭력조직을 모방하여 행동강령을 만들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조직화 되고 있으며, 사이버 폭력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에 특정학생의 안티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폭력과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전학 간 학생에게 계속 메일을 보내 괴롭히거나 전학 간 학교의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계속 따돌림을 당하게 만들기도 한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그보다 정신적인 피해를 더 많이 호소하고 있다.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한편, 가해 학생들은 대체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무책임하며, 때로는 “마땅히 혼내 줄 아이를 혼내주었다”는 식의 정당화를 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이는 언론과 매체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살인이나 폭력을 미화시키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 범죄자를 영웅시하는 사회풍토가 청소년들의 무감각하고 무절제한 판단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특별한 비행 청소년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의 가해자가 되는 일이 적지 않다.

몇 년 전, 초등학교생들의 집단성폭행이 발생하여 국민을 경악케 하였다. 신문과 방송에 연일 이 사건을 다루었으며,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문제가 음란물 때문이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가해자도 피해자다”라는 말이다. 전에도 종종 끔직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방송을

들으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은 그 범인의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말부터 방송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린 시절이 불우하다고 모두 살인을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까? 초등학교 집단 성폭행사건이 일어난 후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한 기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다.

그 기자의 첫 번째 지적은 그 사건 후 4개월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하여 재발 방지나 어떤 개선책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아무 기관에서도 단 한 가지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고, 오히려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야 할 형편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음란물도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 문제는 그 이전의 문제라고 한다. 주변의 어른들이, 사회가 보여준 문화가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낸 것이다.¹⁾

학교폭력은 심각한 폭력사건 자체만으로도 위기에 처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폭력사건 자체보다 그로 인해 주변 학생들에게 노출되어 발생한 수치심과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 주변 학생들이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고립 등으로 더욱 위기를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견제되지 않으므로 한두 명의 피해자, 가해자가 아닌 학교나 학급의 다수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폭력사건 하나만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고, 학교 전체가 학교폭력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²⁾

학원폭력사태가 더욱 심각해지자 어떤 경비 업체에서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회의적이었다. 학생들은, “언제까지나 경호를 계속해줄 수는 없을 것이고, 경호가 중단된 후에는 더욱 심한 폭행을 당할 것”이라고 두려워했고, 교사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1)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리더스, 2010), 73-75.

2) 문용린 외, 『학교폭력 위기개입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8), 33-34.

주위사람들에게 광고하는 셈이 된다.”고 우려했다. 학부모들도 비슷한 이유로 찬성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어떤 학부모는 “그런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가해 학생들을 상담해줌으로써 그들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화평한 가운데 학교생활을 하도록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어떤 상담을 해주어서 그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 상담자들은 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타격을 돌보기 바쁜 상태이다. 가해 학생들을 치료해서 화평을 추구하는 학생으로 변화시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혹시 있다 해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성장과정에서 폭력에 많이 노출되었거나, 학교생활의 부적응, 소속집단에서의 거부, 공부나 입시로 인한 강박관념, 가정불화로 인한 갈등, 또래압박 등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본래 죄 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적개심, 자기애적인 자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열등감, 탐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인간관계를 이루며 학교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집단의 영향, 사회와 대중매체의 영향, 등의 이유로 폭력적이 된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대책은 다각도로 접근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당사자들의 마음의 문제를 성경적 상담의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그들을 상담으로 도울 때에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적 상담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는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II. 펴는 글

1. 학교폭력의 정의

청소년백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³⁾

Dan Olweus는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다른 학생의 부정적 행위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그 학생은 폭행당하고 있거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정의한다. 여기서 ‘부정적 행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불안을 끼치거나 또는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다시 말해 공격적인 행동양식의 정의에 들어맞는 행동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정적 행위에는 말(위협, 조롱, 들볶는 것, 별명을 부르는 것 등)과 물리적 접촉(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꼬집거나 붙잡기 등)이 있으며 물리적 접촉 없이도 인상 쓰기, 더러운 몸짓을 하기, 일부러 그룹에서 따돌리기, 다른 사람의 요구에 거절하기 등이 가능하다.

이 정의의 특징은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적 행위를 말하며 어찌다가 저질러지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부정적 행위는 제외한다. 폭행은 ‘힘의 불균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부정적 행위에 노출된 학생이 가해학생(또는 그룹)에게서 자신을 방어하기가 어려운 경우이다.⁴⁾

‘폭력’을 극단적인 협의로 정의하면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도가 심한 물리적 공격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법률적인 개념으로 살인, 폭행, 상해 등의 심한 물리적인 폭력은 명백히 폭력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폭력의 정도가 법에 저촉될 만큼 심각하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폭력도 있을 수 있으며, 지속

3)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2010), 182.

4) Dan Olweus, *Bullying at School :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이동진 역,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 예방에서 대책까지 우리는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서울: 삼신각, 1996), 23-25.

적이지 않아도 그리고 법률에 저촉될 정도는 아닌 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⁵⁾

폭력의 현상이 교내가 아니라 학교 주변이어도 학생들 사이의 폭행이라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의 폭력은 넓은 의미에서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2. 학교폭력의 원인

청소년의 학교폭력은 단순한 탈선의 차원을 넘어 범죄행위가 되면서 그 유형도 점차 집단화, 조직화되고 있다. 이런 학교폭력의 원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의 원인을 가정적 원인, 학교에서의 원인, 사회적 환경의 원인, 개인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적 원인

학교폭력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문제점이다. 가족 내의 한 구성원의 활동은 다른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며 어떤 반응이나 반작용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가정은 성인에 비해 감수성이 훨씬 예민한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우선적인 배움의 장이요, 신학적인 공동체로서, 사회적인 공동체로서, 구속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⁶⁾ 그런데 가정 내지 가족관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인격에 장애를 가져오게 될 위험성이 크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최초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곳이다. 따라서 인간의 성격과 행동패턴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기관이

5) 문용린 외,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서울: 학지사, 2008), 30-31.

6) Paul Tripp, *Age of Opportunity*, 황규명 역,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7), 77-93.

다. 우리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경제문제 등을 이유로 핵가족화 하였고,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덕률 및 품성교육을 가정이 아닌 외부에서 체득하게 되었다. 필연적으로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게 되고, 결국 청소년에 대한 사회 통제력의 결여로 나타나게 된다.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자녀들을 탈선시키는 큰 원인임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1) 가정의 교육적 역할 부재

아버지가 경제적인 부분을, 어머니는 가정살림을 책임지던 예전과는 달리 현대사회는 경제적 중요성과 여성의 인권 신장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더하지만 자녀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가정의 교육적 역할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현대 가정의 형태가 대가족으로부터 핵가족으로 변천되면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도 약화되었다. 즉 과거에는 대가족 속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배우며 그에 따른 행동양식을 학습할 수 있었으나,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는 대인 관계에서의 양보심이나 협동심 등의 학습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결손가정’이라기보다는 ‘기능적인 결손가정’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생활 전반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행이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급기야 포기해버리기도 한다. 그리하여 가정은 사회화의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는 경우가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가족 해체적 요인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개인주의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갖게 하고 또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폭력까지 휘두르게 하는 비행의 원인이 된 것이다.⁷⁾

(2) 부모의 양육태도

어떠한 성장여건 아래에서 공격적 학생이 나오는가? Olweus는 네 가지의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7)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 문제론』 (서울: 도서출판 서원, 1996), 263.

첫째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대개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지니는 기본적인 정서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이의 초기시절에 보여주는 정서적 태도가 따뜻한 정과 개입이 없는 부정적 태도일 경우, 그 아이가 나중에 공격적이 될 위험을 증가시킨다.

두 번째는 주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아이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주고, 공격적 행동양식을 어느 정도 허용했는지 하는 문제이다. 같은 또래, 자기보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공격적 행동양식에 분명한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그 아이의 공격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육체적 처벌과 격렬한 감정폭발 등 부모가 ‘힘을 강조하는 육아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폭력이 폭력을 부른다”는 말을 뒷받침해준다.

끝으로 ‘아이의 성질’도 공격적 반응형태의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평범하고 조용한 성격의 아이보다는 활동적이고 ‘성미가 급한’ 아이가 공격적인 아이로 성장하기 쉽다.

어린 시절의 요인에 관한 다른 조사들과 대조해서 이 조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이 나온다. 즉,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의 사랑과 개입, 행동을 허용하고 금지하는 명확한 한계, 육아에 있어서 비육체적인 방법의 사용이 조화롭고 독립적인 아이들 길러낸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요인들은 아주 어린 아이나 나이든 아이 모두에게 중요하다. 아이들이 10대로 접어들면, 학교나 바깥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친구가 되는지 등을 감시하려는 노력이 또한 필수적이다. 폭력, 반사회적 또는 범죄적 행동의 대부분은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모를 때, 또는 어른이 근처에 없을 때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공격적 반응형태의 발전에 중요한 육아요인들은 가정 안의 어른들 사이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부모 사이의 잦은 불화는 아이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⁸⁾

8) Olweus, *Bullying at School*, 52-56.

(3) 가정에서의 폭력

가해학생은 이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와 자매들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아동이 폭력집단에 가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는 이전의 폭력 경험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도 아동학대의 경험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맞거나 닥치는 대로 맞을 때, 강한 적개심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다시 폭력으로 표출되기 쉽다.

이신옥이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행동과의 관계를 조사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자녀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학교폭력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로부터 자녀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아버지로부터의 자녀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강제 심부름, 금품갈취, 물리적 폭력, 폭언, 따돌림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로부터 자녀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금품갈취를 제외한 모든 학교폭력행동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가정폭력경험 정도에 따른 집단으로 분류하여 가정폭력경험정도에 의한 학교폭력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도 중복학대경험집단(부부폭력 목격경험과 자녀학대 경험을 모두 가진 집단)이 가장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⁹⁾

이상의 연구들을 통하여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과는 무관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가정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약하고 자아정체성과 내적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과 불만을 폭력행동으로 표출하게 되므로 가정폭력의 경험은 학교폭력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9) 이신옥,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보호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3), 58-75.

2) 학교 환경적 원인

학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년기를 보내는 장소이므로 학교생활은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환경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체계가 진학 경쟁을 위해 지식 편중 교육에만 치중하게 되어 있고 학생 지도 체제는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습에 관심이 높고, 교사와 또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만 학습욕구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교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도 자존심을 상하기 쉽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학습이나 생활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학교생활을 잘 하는 학생에게 맞추고 있어 생활을 잘 못하는 학생은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지나친 열등감, 불안감을 안겨 주어 무단결석, 등교 거부, 수업방해의 형태로 나타나는 학교의 부적응 뿐 만 아니라 비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소외되고 열등의식에 빠진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료나 후배들에게 “나를 무시한다,” “견방지다” 등의 이유를 들어 폭력을 행사한다. 또한 학교교육이 갖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비인간적인 교육 풍토 등은 청소년들을 공부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병들게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개인주의, 요령주의, 출세주의 등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관을 심어주어 청소년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¹⁰⁾

3) 사회 환경적 원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중매체에 의한 영향이다.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는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화, TV, 인터넷 등의 문화적 매체는 일반문화의 향상에 큰 역

10)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 문제론』, 263-64.

할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직접적인 비행의 동기나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청소년기 이전부터 TV, PC, 영화 등 각종 영상매체나 폭력묘사 만화와 소설 등 인쇄매체를 자주 접촉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성장과정에서부터 매체를 통한 폭력행사의 간접경험과 청소년을 탈선으로 이끄는 사회적 환경의 급속한 팽창 및 폭력을 미화하는 사회 분위기가 청소년 폭력을 조장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도시화로 인한 자연적 놀이공간의 상대적 축소와 성인들의 향락산업 팽창은 청소년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청소년 놀이문화가 음성적으로 성인문화를 모방하게 조장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퇴폐, 폭력문화를 조장하는 각종 잡지, 만화, TV 광고, 불법 비디오 등의 범람과 유흥업소, 전자오락실, 심야다방, 카페 등의 증가로 사회 곳곳엔 청소년을 유혹하는 유해환경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대중매체의 폭력에 대한 빈번한 노출은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폭력에 대한 감정 반응을 둔화시키며, 분노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려는 동기를 조성하여 반사회적인 공격 행동을 야기한다. 또한 폭력영화의 주인공을 영웅화하여 폭력을 미화시킴으로써 '폭력에 대한 동경'을 일으키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와 접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폭력물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폭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잠재적인 폭력성향이 형성되 쉽다.¹¹⁾

4) 개인적 원인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새롭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자아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나 자극에 의해 감정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며, 각종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

11) 윤진 · 곽금주,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권 2호(1991).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 문제론』, 264에서 재인용.

하여 과격하게 표현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또한 가해학생들은 피해자보다 힘이 세고, 다른 학생들을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힘과 위협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낸다. 그들은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며 충동적이고 좌절에 대해 관용성이 모자라고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 성장으로 인해 성적 욕구의 원만한 해결이 큰 고민거리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욕구불만-공격성 이론에 의하면 현대사회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성적 욕구불만이 청소년 폭력을 일으키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한다. 억압된 청소년들의 성적 욕구가 생활 주변의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환경 요인들에 의해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표출되는 것도 청소년 폭력을 조성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청소년기에 발달되는 역할갈등과 정체위기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 독립과 의존의 갈림길에서 느끼는 방향,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춘기적 독특한 심리적 특성들이 청소년 폭력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¹²⁾

발달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공격성은 13-15세에 절정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 중기 이후에는 외현적 공격성은 감소하나 일단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하기로 결심하면 더 폭력적이 되며, 분노와 적대감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된다.¹³⁾

3. 학교폭력 원인의 불확실성과 마음의 문제

학교폭력의 원인을 대략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런 원인들에 대한 회의도 많다. 문용린은 학교폭력 문제를 에워싸고 있는 구성요소들이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하면서 원인의 불확실성을 주장한다.

우선 가해자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특성은 “지능이 낮다.” “학교 공부를 못

12)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 문제론』, 262-63.

13) 오윤선, “역기능 가정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향 분석에 따른 기독교상담 연구”,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7권(2006): 20.

한다.” “결혼 가정에 많다.” “나쁜 친구와 어울린다.” “폭력 영상물을 많이 본다.” “돈 씹씹이가 헤프다.” “정서자제력이 약하고 충동적이다.” “피해학생이 가해자로 발전된다.” 등인데 이제까지의 어떤 연구도 이런 특징들이 가해자를 설명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된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지능이 낮은 학생이 모두 가해자가 되었다.’는 증거도 없고, ‘가해자가 모두 지능이 낮았다.’는 증거도 없다. 가해자 중에는 지능이 낮거나 폭력 영상물을 많이 보았거나 결혼가정 출신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는 가해자가 되지 않은 학생이 훨씬 많으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 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몸이 허약하다.” “신체적으로 남다른 특징이 있다.” “말을 더듬는 등 언어상의 특징이 있다.” “건방진 모습을 보이는 등 남을 화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전학자 중에 많다.”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하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등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공통된 특징을 찾으려 한 노력은 모두 실패했으며 어느 연구도 피해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학교폭력을 가해자나 피해자의 심리적이거나 가정적 또는 행동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데 실패하였다. 즉, 학교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한 것이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상황이 학교폭력과 관련된다는 면에서, “체벌에 관대한 가정과 학교의 문화가 학교폭력을 조장한다.” “폭력적인 가정이 학교폭력을 조장한다.” “일제시대의 폭력문화가 학교폭력을 조장한다.” “군사문화가 학교폭력을 조장한다.” “조직폭력이 미화되는 사회 분위기가 학교폭력을 조장한다.” 등의 주장이 있는데 이런 결론도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며 검증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드라마, 영화, 컴퓨터, 게임, K-1격투기 등의 폭력성이 학교폭력과 상관성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의 일환으로 많이 발표되고 있는 연구들의 결론이 찬성 반 반대 반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학교 폭

력의 원인과 발생조건에 관해서 선부르게 미리 결론을 내리는 ‘선입견의 실수’를 경계해야 한다. 즉, 모든 학교폭력 상황에 동일하게 작용될 이론과 결론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다루는 교사나 전문가들은 이론적 틀에 지나치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가해자나 피해자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사명감과 애정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⁴⁾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결론적으로 이론의 틀에 매일 것이 아니라 가해자나 피해자의 생생한 삶을 애정으로 돌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된다. 그러나 여기서 왜 그렇게 복잡하며 불확실한지 생각해보고 싶다. 무언가 중요한 요소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점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존재이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문용린은 “학교폭력은 가해자에서 시작된다. 그가 피해자를 선택한 후 폭력의 방법과 강도 및 빈도를 결정한다. 가해의 지속 여부도 그의 결정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이해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다.”¹⁵⁾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지만 일관성 있게 성립하는 원인-결과의 이론은 확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것은 이유를 환경적 측면에서만 찾았기 때문이다. 인간을 결정론 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이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명백한, 혹은 동일한 이유나 환경의 영향 없이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맹수는 생존을 위해서 다른 동물을 사냥한다. 그러나 인간은 배가 불러도 즐기기 위해서 사냥을 한다. 가해학생도 이와 같은 죄의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배제하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한 때는 피해자였다가 나중에는 가해자가 되었던 학생에게 “어떤 아이를 피해자로 선택하느냐?”고 물었더니 “폭행을 당해

14) 문용린 외,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19-22.

15) 문용린 외,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19.

도 선생님에게 고하지 않을 만한 아이를 선택한다.”고 답하였다. 때 맞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얌전한 아이만 피해를 당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거나 눈에 거슬려서 폭행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특성도 원인-결과에 대한 일관성을 제공해주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대책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토록 인간을 움켜쥐고 있는 ‘죄’는 어떤 것인가? 죄가 만들어내는 첫 번째 요소는 반역이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데, 자율성, 자기 충족성, 그리고 자기 초점이라는 거짓말을 따르는 타고난 성향이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를 끊임없이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율성(Autonomy)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때에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다. 자기 충족성(Self-sufficiency)은 “나는 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거나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다. 자기 초점(Self-focus)은 “나는 내 세상의 중심이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과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만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라는 뜻이다. 이러한 것들은 에덴동산에서부터 계속 사탄이 속삭여왔던 거짓말이다.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순종하며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다.

이러한 독립심, 자기 충족성, 그리고 자기도취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을 갖게 하며 남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내가 통제받는 것을 싫어한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우리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분의 통치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¹⁶⁾ 폭력학생들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죄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여건과 맞물려서 외부로 강력하게 표출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폭력학생이 원래 따로

16) Paul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2002), 13-16.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있다. 그들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변화가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고, 본질적 변화는 불가능하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우리에게는 구원과 치유와 용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4. 학교폭력 당사자들의 마음의 문제와 상담

1) 피해학생의 경우

(1) 피해학생의 특징과 마음의 문제

대체로 다른 일반 학생보다 더 불안정하며 소심하고 예민하고 조용한 경우가 많다. 다른 학생들의 공격을 받으면 후퇴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며 자존심이 별로 강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처지에 관해서 부정적 견해를 지닌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학교에서 외롭고 따돌림을 당한다. 일반적으로 폭력적 수단의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남학생의 경우라면, 다른 학생보다 힘이 약한 편이다.

Olweus는 이러한 형태를 ‘수동적’ 또는 ‘굴종적 희생자’라고 불렀다. 한마디로, 수동적 희생자의 태도와 행동양식은 “자기가 공격이나 모욕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을 그런 불안정하고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다른 학생들에게 신호하는” 것과 같다.

수동적 희생자에 비해 적은 수의 ‘도발적 희생자’ 그룹이 있다. 이것은 불안한 반응형태와 공격적 반응형태가 결합된 경우이다. 일부는 행동과잉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런 학생의 행동이 학급의 많은 학생을 자극하여 부정적 반응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도발적 희생자에 관한 폭력문제는 수동적 희생자의 경우와 그 과정이 일부 다르다.¹⁷⁾

17) Olweus, *Bullying at School*, 52-56.

피해자와 그 부모는 내가 혹은 내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 피해학생이 폭력에 맞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더욱 강한 분노감을 갖게 된다. 특히 신체적인 폭행으로 외상이 뚜렷한 경우에 부모는 이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흥분한 상태를 보일 수도 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안 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의 피해상황을 생각하게 되면서 부모도 정서적인 충격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다. 그러므로 상담자에게 찾아와 학교폭력 피해 사실 외에 왜 당했는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을 자발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¹⁸⁾

피해학생과 그 부모의 마음에는 슬픔과 분노가 있다. 그리고 수치감과 좌절감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악한 일에 악으로 대항하지 않도록 하여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런 도움을 줄 때에 적절한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했다. 피해자의 분노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필요는 있지만 복수를 권장할 일은 아니다. 물론 필요한 정당한 조치는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도록 한다. 계속해서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

18) 문용린 외,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183-189.

할 것이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피해학생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2) 피해학생 상담에 고려할 사항

전형적인 피해자는 불안하고 불안정한 학생으로서 대개는 사람들의 주목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이 곤경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고자질을 하면 한층 심한 폭력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위협도 자주 받는다. 그래서 피해자는 부모에게 학교와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폭력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른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폭력상황이 극단적으로 심한폭행을 수반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충격적인 체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다.¹⁹⁾

피해학생의 경우엔 피해를 당했지만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위로와 신체적, 정서적 안전에 대해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한다. 그리고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왜 당했는지에 대한 파악을 통해 향후 다시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학생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래의 소외나 배신으로 인한 정서적 충격이 상당히 큰 상태이므로 피해 후유증에 대해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부족한 사회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학생 스스로 자신이 못나서 피해를 당한다는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피해학생 스스로가 폭력에 대처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²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정체성과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9) Olweus, *Bullying at School*, 129-139.

20) 문용린 외,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184-85.

피해학생 부모에게도 자녀가 당한 피해와 그로 인한 분노에 대해 정서적 공감과 지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만약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가 원인 제공을 했다면 부모가 일차적으로 학생을 돕지 않으면 다시 재발될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만약 피해학생이 폭력의 동기를 유발했다는 식의 책임이 거론되면 피해학생 부모의 분노감이 상담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²¹⁾

피해학생을 돕기 위해서는 전문적 상담을 더욱 강화해야겠지만 또래상담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는 전문가 집단과의 교량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 인력의 수적 제한성을 감안할 때 또래상담은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외로움이 감소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행동이 많아지고 학업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되는 효과를 거두어 폭력예방에 도움이 된다.²²⁾ 가해학생이 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도 유력하지만, 특히 피해학생이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2) 가해학생의 경우

(1) 가해학생의 특징과 마음의 문제

전형적 폭력학생의 분명한 특징은 다른 학생에 대한 공격성이지만 교사와 부모 등 어른들에게도 공격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충동적 성격과 타인을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도 그 특성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은 거의 없다. 남학생의 경우 다른 일반 학생보다 힘이 세고, 특히 피해자보다 힘이 세다.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지닌 견해는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양식의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서' 불안하다고 하는 것이다. Olweus는 폭

21) 문용린 외,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185.

22) 오윤선, "역기능 가정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향 분석에 따른 기독교상담 연구", 34.

력학생이 불안정하다는 가설을 여러 가지 조사로 시험해 본 결과 그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는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폭력학생은 이상할 정도로 불안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자존심의 약화로 괴로워하지도 않았다. 폭력에 참가하는 하지만 앞장서지 않는 학생을 ‘수동적 폭력학생’, ‘추종자’, 또는 ‘부하’라고 부를 수 있다. 수동적 폭력학생의 그룹은 불안정하고 불안한 학생들도 포함할 것이다. 폭력적 행동양식의 심리학적 원인에 관해서는 조사결과들이 어느 정도 상호 연관된 동기를 세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폭력학생은 권력과 지배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고, 그것을 즐기는 듯하다. 둘째, 많은 폭력학생이 주변 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대감을 품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셋째, 그런 폭력행동에 ‘이익 요소’가 따른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격적 행동양식이 권위의 형태로 보상받는 경우도 많다.²³⁾

학교폭력의 양상은 대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집단에 작용하는 몇 가지 생리가 있다. 많은 조사보고에 의하면 어린이든 어른이든 다른 사람, 즉 ‘모델’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관찰하고 난 뒤에 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고 한다. 모델이 난폭하고 겁이 없고 강한사람인 경우, 효과는 한층 더 강해진다. 이러한 모델효과를 가장 강하게 받는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불안정하고 의존적인 경우(수동적 폭력학생), 동료들 사이에 위치를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경우 등일 것이다. 이런 형태의 효과에 대해서 ‘사회적 전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밀접하게 관련되는 또 하나의 생리는 ‘공격적 경향에 대한 통제의 약화’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원칙은 공격적인 행위로 모델이 ‘보상’을 받는 것을 보면, 관찰자가 공격적으로 되려고 하는데 대한 자신의 제어와 통제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모델에 대한 부정적 결과는 관찰자의 금지적 경향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모델(즉, 폭력학생)이 폭력 희생자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 보상을 받지만,

23) Olweus, *Bullying at School*, 52-56.

그런 폭력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받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정도에 그칠 때, ‘중립적’인 학생(관찰자)들의 공격적 경향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를 약화시키고, 그들은 폭력에 참가하도록 고무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어른들과 동급생들이 개입하고, 또 폭력상황의 지속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²⁴⁾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는 내가 혹은 내 자녀가 폭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폭력 자체를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본능이 있다. 신체적인 폭행이 아닌 정서적인 폭력의 경우엔, 특히 그 자체를 폭력이 아닌 장난으로 취급하고 있다. 가해학생이 집단일 경우에는 집단행동에 대해 합리화하며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감을 약화시킨다.²⁵⁾

이 모든 가해학생의 악한 행동은 그의 마음에서 나온다. 대체로 부모나 교사는 그의 행동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게 된다. 성경은 사람의 행동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또 그 밖의 것들(22절)이라고 했다. 학교폭력이 단순 구타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살인과 성폭행, 그리고 금품갈취 등, 학생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진실로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들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정 폭력학생의 행동을 고치려면 반드시 그의 마음을 다루어야만 한다. 어떻게 그의 마음이 그런 행동으로 흘러나오게 되었는지 살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²⁶⁾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폭력학생이 자신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간의 맹목적인 자기사랑이 그러한 변화를 가로막는다.

24) Olweus, *Bullying at School*, 62-66

25) 문용린 외,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187.

26) Tedd Tripp, *Shepherding a Child's Heart* (Wapwallopen, PA.: Shepherd Press, 1995), 3-5.

무엇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인가? 나의 삶에 대하여 시작과 끝을 결정짓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무엇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진실을 대면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알레르기처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의 죄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을 깨닫고 직면한다면 그는 밝은 시각을 얻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과 행동을 나타낼 것이다.²⁷⁾

상담에 사용할 수 있는 성경구절로는 잠언 3장 29절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이는 가해학생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학생을 해치는 것을 지적한다. 31절에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한다. 이는 수동적 폭력학생이나 방관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하셨다. 피해학생이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 가해학생에게 미안하다고 하거나 용서를 구하면 굳이 폭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잠언 16장 29절에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 하느니라”고 한 말씀은 가해학생이 패거리를 만드는 것을 경계하는 뜻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직면이 되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알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열거하며 여러 사람 앞에서 성토했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 오셨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27) David Powlison, *Speaking Truth in Love* (Winston-Salem, NC.: Punch Press, 2005), 34-35.

그들을 죽이시려면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벼락을 내리시면 된다. 잘못된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다.²⁸⁾

(2) 가해학생 상담에 고려할 사항

가해학생에게는 폭력의 비정당성을 인식시켜 줌과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상담해 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 피해학생이 당한 피해상황과 그 충격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받게 되는 현실적인 처벌 부분도 직시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왜 폭력을 가했는지 이들이 폭력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심리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가해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식 부분에 대해 우선 이해하고 공감해준다. 이는 가해학생의 마음을 열고 지속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신뢰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훈계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관계형성에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하거나 심문조의 상담은 금물이다.

가해학생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돕는 부분도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인은 가해학생의 행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부분이지만 가해학생 스스로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해학생 부모와의 상담도 중요하다. 문제해결을 위한 위기상담과 함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가해학생의 부모가 피해학생의 부모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가능하면 피해학생 부모와 충돌 없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상담자는 부모의 심정을 잘 듣고, 공감하고, 치료동맹관계를 잘 맺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문제의 책임을 부모에게 묻고 비난하는 식의 태도보다는 자신도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는 상담자 앞에서만 부모도 자신의 변명, 방어를 내려놓고 진솔하게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고 반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담자는 부모의 불만사항을 공감해 주고 부모로서

28) William Smith, *Caught Off Guard*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2006), 12-13.

의 역량에 대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⁹⁾

가해학생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환경에 대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고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에게 분명히 알려야 할 것은, 부모로서 폭력문제를 심각하게 취급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폭력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가정 내의 몇 가지 단순한 생활규칙에 관해 자녀와 합의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가 합의된 규칙을 지킬 때 많이 칭찬하고 좋은 평가를 내려주며 합의된 규칙을 어겼을 때는 일정한 부정적 제재가 뒤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친구들이 누구지, 자녀와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부모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와 함께 있는 것도 공동의 긍정적인 체험을 위해, 자녀의 성격과 반응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된다.³⁰⁾ 이와 같은 노력은 상담자와 학부모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닫는 글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생 각해보고자 하였다.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당사자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들의 부모, 주변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본질의 문제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의 속성을 가진 존재이다. 인류사회가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면서 긍정적인 발전도 많았지만, 그만큼 인간의 악한 문화를 더 빨리 광범위하

29) 문용린 외,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187-189.

30) Olweus, *Bullying at School*, 129-139.

게 전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악한 행태를 빠르게 본받으며 일찍부터 발전시키고 있다.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기에 중요한 배움의 장이요, 생활의 환경인데 학생들이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면서 부정적인 세상과 삶을 체험, 학습하면서 심신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의 본연의 기능에 합당한 학교 생활을 되찾기 위해서 학교와 가정과 교회와 온 나라가 일심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그 노력이 너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성경적 진리에 입각하여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 모든 노력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독교상담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은 이해와 적용을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실제 상담의 방법을 다루지 못하였다. 앞으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성경적 상담의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문용린 외.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서울: 학지사, 2008.
- 문용린 외. 『학교폭력 위기개입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8.
-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2010.
- 오윤선. “역기능 가정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향 분석에 따른 기독교상담 연구”.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7권(2006).
- 이신옥.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보호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3.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 문제론』. 서울: 도서출판 서원, 1996.
-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리더스, 2010.
- Olweus, Dan. *Bullying at School :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이동진 역.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 : 예방에서 대책까지 우리는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서울: 삼신각, 1996.
- Powlison, David. *Speaking Truth in Love*. Winston-Salem, NC.: Punch Press, 2005.
- Smith, William, *Caught Off Guard*.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2006.
- Tripp, Paul.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2002.
- Tripp, Paul. *Age of Opportunity*. 황규명 역.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7.
- Tripp, Tedd. *Shepherding a Child's Heart*. Wapwallopen, PA.: Shepherd Press, 1995.

【 Abstract 】

The Heart Issue in School Violence:
Biblical Counseling View

Kyu Myeong Whang

Chongshin University

Violence is a serious issue in the society. School is not safe from the violence. School violence became a serious issue also. It is organized and brutal.

Many studies have been made to identify the causes of school violence. Many possible causes were found but none of them were certain. To understand this kind of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human hearts of people involved in school violence.

The human being is created according to God's image, but the human heart is sinful by nature. This fact must be considered in counseling people involved, especially the offenders. Offenders as well as victims have their own psychological hurts and wounds. They must be helped to realize the love of God and the hope in Christ. Their hurts must be taken care of, but more importantly their sinfulness must be brought to God. What keeps them from needing God? Something in them doesn't want to face the Someone who has the first and last say about their lives.

In their hearts, there are anger, selfishness, greed, arrogance, fear of man, etc. They must be helped to gain a new life and identity in Christ. If the people involved in school violence, especially the offenders, by grace of Christ, realize their sinfulness and rebellion against God, and gain a new sight and heart, their behavior will be changed.

Key words: God, Christ, heart, sinfulness, violence